

“消瘴”과 “消渴”에 대한 인식변천考

상해중의약대학 중의문헌연구소¹ · 원광대학교 한약연구소·약학대학 한약학과²

김영일¹ · 권동렬² *

Textual Research on Cognitional Vicissitude of Sodan(消瘴) and Diabetes

Kim Young-il¹ · Kwon Dong-yeul²

¹The Research Institute of TCM Literature, Shanghai TCM University

²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book 『Hwangjenaegyong(黃帝內經)』, Sodan(消瘴) is strictly distinguished from ‘diabetes’ in the category. The former is a name of disease, but the latter means a symptom of ‘Sodan.’ At first the suffix ‘dan’ of ‘Sodan’ means disease, but over time, it had been used as the meaning of ‘jaundice’ and ‘diabetes.’ And as Jangjunggyeong(張仲景) applied the concept ‘Sodan’ to ‘diabetes’, now the word ‘Sodan’ has not been used as a name of disease anymore. It shows not only graphical change but also recognitive change regarding diseases.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diabetes’ was expanded by reevaluating the concept ‘Sodan’, and resultantly, ‘Sodan’ has been represented in Korea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Key Words : Hwangjenaegyong(黃帝內經), Sodan(消瘴), diabetes

I. 序論

고대 문헌 중 “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詩經·大雅 板』에 “下民卒瘵(백성들이 초췌하게 병들다)”, 여기서 “瘵”은 病의 뜻이다.¹⁾ 『爾雅·釋詁』는 “瘵”을 “勞”²⁾라注하고, 『廣雅·釋詁四』는 “苦”³⁾라고 하였다. 東漢 許慎은 “勞病”⁴⁾이라 해

석하며, 청대 王筠은 “《詩經》에서 瘵를 말한 것은 실제로 질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⁵⁾라고 하여 아직 병 든 상태가 아닌 점을 강조하였으니, 이는 전보다 진일보한 주석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고대 비의학문헌의 “瘵”자는 勞苦로 인하여 병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며, “熱”의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瘵”은 황달병의 뜻으로도 쓰인다. 『山海經·西山經』에 이르기를 “익망산에…… 짐승이 사는데, 그 형상이 마치 너구리와 같으며……이것을

* 교신저자 : 권동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E-mail : sssimi@wku.ac.kr Tel : 063-850-6802

접수일(2009년 7월 19일), 수정일(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1) 宋·朱熹注. 詩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234.

2) 徐朝華. 爾雅今注.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4. p.39.

3) 清·王念孫. 廣雅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4. p.120.

4) 東漢·許慎原著. 湯可敬撰. 說文解字今釋. 長沙, 嶽麓書社. 1997. p.1028.

5) 清·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98. p.280.

먹고 瘰이 치료되었다”⁶⁾. 여기서 “瘰”은 황달(“疸”)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의학문헌에서도 보이는데 현존하는 가장 이른 문헌인 馬王堆漢墓帛書《陰陽十一脈灸經》(甲本) 少陰脈중에도 “(黃)瘰”⁷⁾자가 보이는데, 『靈樞經脈』과 『針灸甲乙經』(卷二, 第一)에서는 이를 “黃疸”(황달)로 표기하고 있으며, 특히 《針灸甲乙經》(卷十一, 第六)의 경우는 “黃瘰” 또한 보이고 있어⁸⁾ “瘰”과 “疸”을 혼용하고 있다. 한편, 『黃帝內經太素』 제8권에서는 “黃瘰”⁹⁾이라 기재되어 있고, 『神農本草經』序錄 및 茵陳蒿, 苦參, 黃芩, 白鮮 조문 등에서는 “黃疸”로 쓰이고¹⁰⁾, “瘰”자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瘰”이 “疸”로 변천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고대에 황달의 발생원인은 주로 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 “瘰”을 “瘰” 혹은 “火瘰”으로 쓰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¹¹⁾ 이것은 “瘰”이 이미 “熱”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黃帝內經』중 “瘰”은 “熱”의 뜻으로 쓰인 예가 적지 않게 보인다. 『素問·奇病論篇』의 “脾瘰”에 대한 王冰의 주석에서 “瘰”은 “熱”이다¹²⁾라고 하였으니, 이로 보아 『靈樞·歲露論』에서 말하는 “瘰病”은 바로 熱病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靈樞·論疾診尺』 중에 이르기를 “冬傷於寒, 春生瘰熱”(겨울에 寒邪를 맞고 잠복해 있다가 봄에 단열이 생기다), 여기서 “瘰熱”은 溫熱을 가리킨다. 『素問·脈要精微論篇』에도 “瘰成爲消中”(成은 盛과 통한다, 消中은 多食, 多尿, 잦은 배고픔 및 몸

이 수척하게 야위는 등 中消證를 말한다)이라 하니, 이 때 “瘰” 또한 “熱”을 뜻하고 있다. 그밖에 단지 열만 있어 한기를 느끼지 못하는 瘧疾(학질)을 일컬어 “瘰瘧”(《素問·瘧病篇》)이라 한다. 이상을 살펴 보건대, 『黃帝內經』중 “瘰”이 “熱”의 뜻으로 쓰인 것은 매우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의미를 미루어 보아 “消瘰”과 “消渴”은 의미가 다양하게 변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의미에 대한 인식이 어려움을 깨닫고 기초와 임상에 활용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헌을 대조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II. 研究內容

1. 『黃帝內經』의 “消瘰”에 대한 정의와 분류

隋唐시기 楊上善은 “消瘰”에 대해 “瘰은 열이다. 內熱이 있으며, 몸은 수척하게 야위었으니(消瘦), 그러므로 소단이라고 한다”¹³⁾(『黃帝內經太素 五藏脈診』 제15권)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고대 비의학 문헌과 비교되는 해석으로서, “消瘰”이 의학적 病名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黃帝內經』의 “消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素問·奇病論篇』은 脾瘰의 발병 원인에 대해 “이 병은 기름지고 단 음식을 자주 먹음으로써 생기는 병이다……기름진 음식은 내열을 생기게 하고, 단 음식은 脾氣의 운행을 막아(열이 되어) 위로 범람하여, 결국 消渴(소갈)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문 중 “소갈”은 “비단”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證候를 말하며¹⁴⁾, 후세에 이른바 독립적인 病名으로 쓰이는 消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素問·通評虛實論篇』에서도 “消瘰, 仆擊(부격 : 뇌졸중풍), 偏

6) 西漢·劉歆 著, 邵士梅 注譯, 山海經, 西安, 三秦出版社, 2008. p.24.

7)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五十二病方, 北京, 文物出版社, 1979. p.18.

8) 晉·黃甫謐著, 劉衡如校, 鍼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32, 240.

9) 隋唐間·楊上善 原撰, 李克光 等校注, 黃帝內經太素 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198.

10) 馬繼興, 神農本草經 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10.

11) 張剛, 中醫百病名源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92.

12) 唐·王冰 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61.

13) 隋唐間·楊上善 原撰, 李克光 等校注, 黃帝內經太素 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515.

14) 余雲岫, 古代疾病名候疏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14.

枯(편고 : 반신불수), 痿厥(위궤 : 허약성질병), 喘逆(천역 : 기가 상역하여 호흡이 급해지는 병)등을 진료함에, 만약 몸이 비대한 왕실 귀족인 경우 바로 기름진 음식을 편식하여 생긴 병이다”, “소단병脈의 허실상태는 어떠한가? 岐伯이 말하기를 맥이 크고 實하면, 오래된 병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고 하여, 이 예문들 중에서도 “소단”은 病名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黃帝內經』의 기재에 따르면, “消瘴”의 주요 임상표현으로는 身熱이 있고 몸이 수척하며, 多飲, 多食, 多尿 및 가슴이 괴롭고 답답하거나(心煩), 성격이 급하며 자주 화를 내는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그 消瘴은 疔, 疔消, 肺消, 및 脾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肺消의 발병기전은 寒과 관련되어, 나머지 소단병이 熱인 것과는 현격한 구별이 있다.

『素問·氣厥論篇』에 “心寒이 肺로 전하여 肺消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張景岳은 《類經》에서 “心火가 부족하여 肺金을 溫養할 수 없고, 肺氣가 溫和치 않으니 津液이 運行되지 못하여, 물을 마시면 그 배가 되는 양의 소변이 나온다”¹⁵⁾고 하여, 陽虛陰證의 “소갈” (소위 “陰消”)임을 강조하고 있다.

『靈樞·邪氣藏腑病形』에서 말하기를 心肺脾胃 오장의 脈이 微小한 것은 소단이 되기 쉽다고 한다. 여기서 “微小한 脈”이 어찌 陽證의 脈이겠는가, 이것은 『黃帝內經』이 陰消의 뜻을 이미 분명하게 지적한 것인데, 다만 사람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할 뿐이다.¹⁶⁾ 명대 肖京이 지은 《軒岐救正論·消症》 중에도 “노인들이 陽虛로 夜尿가 심한 것은 모두 寒消로서, 肺腎金水가 衰竭한 병”¹⁷⁾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黃帝內經》 “消瘴”의 발병기전은 “寒”과 “熱”이 모두 존재하며, 이것은 후세 “소갈”의 병인, 발병기전 중 陰虛燥熱에 의한 것(소위 “陽消”) 이외에도, 陽虛寒濕(소위 “陰消”) 또한 “소갈”이 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을 살펴보면, 『黃帝內經』의 관점으로 보면, “소갈”은 단지 “소단”병의 한 證候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후세로 오면서 “소갈”만을 病名으로 하며, 『黃帝內經』의 “소단” 개념을 대체하였고, “소단”, “비단” 등의 명칭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神農本草經』序錄에 따르면 “소갈”을 이미 병명으로 분류하고 있고¹⁸⁾, 원문(枸杞, 葛根, 栝樓根, 知母 등)에서도 “소갈”만 쓰이며, “소단”은 보이지 않는다.

2. 『黃帝內經』 “소단”과 『傷寒論』, 『金匱要略』 “소갈”의 비교

『傷寒論』 중에 “소갈”을 언급한 곳은 두 곳이 있다. 제 71조 “맥이 뜨고(浮), 미열(微熱)이 있으며, 消渴이 있는 것은 五苓散으로 치료한다”. 문중의 “소갈”은 방광의 蓄水로 인하여 진액이 위로 오르지 않아 생기는 口渴症으로서,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증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는 口乾(입마름)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제326조 “궤음병이라는 것은, 소갈이 있고, 기가 가슴 위로 치솟으며, 心(胃)중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통증이 있고……”, 문 중 “소갈”에 대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열로 인한 (위에서 말한 바의) 口渴症 정도로만 인식하는데, 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예문들은 『金匱要略』 소갈병편에 다시 보이는데, 여기서 “소갈”이 病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궤음병 조문의 전체를 살펴보면, 모두 증후로 열거하고 있어, “소갈”에 대한 仲景의 의도가 病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證候에 있는 것인지,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역대 의가들의 논란을 일으켰는데, 예를 들면 청대 吳謙의 『醫宗金鑑』에 의하면 《金匱要略》의 궤음병 조문은 錯簡¹⁹⁾이라고 하여, 『傷寒論』에

15) 明·張景岳.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07.
16) 明·張景岳.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08.
17) 明·肖京. 軒岐救正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p.451.

18) 馬繼興. 神農本草經 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31.
19)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709.

귀속시키고 있다.

馬王堆漢墓帛書의 죽림음 病候에 이미 “소갈”(당뇨병)의 전형증상인 三多一瘦(多飲, 多食, 多尿, 消瘦)의 유사증후가 보이며²⁰⁾, 또한 이것을 모두 죽림음맥으로 치료하고 있다. 왕강주씨는 약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疎肝調氣法은 인슐린 분비기능을 회복, 촉진할 뿐만아니라, 인슐린 수용체 결합을 향상시켜, 당뇨병의 근본적 치료법”²¹⁾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죽림음병 조문에 있는 “소갈”은 단순한 證候가 아니라, 病名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더욱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五苓散 조문에 있는 “소갈”은 체내 水氣의 정체로 인하여 진액이 상승치 못함에서 생긴 구갈증을 말한다. 이러한 구갈로 인하여 자주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 소갈병과 매우 흡사하여 “소갈”명칭을 빌려 썼을 뿐, 그 실은 病名을 말한 것이 아니다.

『金匱要略』의 소갈병 발병기전을 살펴보면, “熱”이외에 “寒”에 의한 것도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남자가 소갈병으로 소변이 많아져서 물 한말을 마시면 한 말 그대로 소변이 나오는 것은, 腎氣丸으로 치료한다”(消渴病篇 第3條)하니, 이는 腎氣가 부족하여, 위로는 진액이 상승하지 못해 口渴이 생기고, 아래로는 방광의 기가 약해져 多尿(즉 소변이 많아진 陰寒의 消渴病)가 생긴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중경의 “소갈”에 대한 용법은 증후와 병명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편, 발병기전에 대해서는 熱과 寒 모두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傷寒論』 『金匱要略』이 말하는 “소갈”이 실은 『黃帝內經』의 “소단” 개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黃帝內經』 “소단” 발병기전 중에는 “熱”과 “寒”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중경은 이를 “소갈”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3. 『黃帝內經』 “소단”과 현

20) 金永日. 《脈書》對中醫理論體系影響之探討. 上海. 中醫文獻雜誌. 2008. 5. p.12.

21) 王鋼柱. 中醫疏肝調氣法治療糖尿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2.

대 중의학 “소갈”의 비교

『黃帝內經』 “소단”은 과연 현대 중의학²²⁾에서 말하는 “소갈”과 동일한 범주의 개념인가? 혹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病因, 病理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黃帝內經』 “소단”의 병인

(1) 藏腑柔弱—『靈樞·五變』에서 “오장이 허약한 사람은 소단병에 잘 걸린다”고 하며, 『靈樞·本藏』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오장이 약하다는 것은 소단병의 병인, 발병기전을 두고 한 말이다.

(2) 性情剛強—『靈樞·五變』은 또한 “성격이 강하면 화를 잘 내고, 따라서 기가 위로 치솟으며……이것이 쌓여서 울화가 되어, 진액을 손상하고 피부근육을 마르게 하니, 그래서 소단이 된다”고 하였다.

(3) 內熱熾盛—“心熱을 肺로 전하니 鬲消(격소)가 된다”(『素問·氣厥論篇』)

(4) 무절제한 식습관(즉 기름지고 단 음식의 과다섭취) 및 藏氣의 陽虛 또한 그 대표적인 병인, 발병기전이 될 수 있다.

2) 『實用中醫內科學』 “소갈”의 발병기전²³⁾

(1)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열이 盛하여 津液을 손상

(2) 정신, 심리적(情志) 요인에 의한 鬱火(울화)로 陰血을 손상

(3) 선천적인 장부기능 허약

(4) 房事과다로 인한 腎精부족

(5) 溫燥한 성질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내열축적

22)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 중의학”이란 상해과학기술출판사에서 1985년 처음 출판된 『實用中醫內科學』을 지칭하며, 본서는 현재까지도 현대 중의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권위가 있는 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23) 黃文東.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477.

과 陰津의 손상

이상에서 보면 “소단”과 “소갈”은 그 병인과 발병기전 상에서 대동소이하하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 간의 구별은 매우 명확한 것이다. 전자는 “陽虛”역시 “소단”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발병기전인데 반하여, 후자는 주로 “陰虛燥熱”을 위주로 한다. 『實用中醫內科學』 “소갈”편 문중에 비록 “虛冷”, “腎陽虛”등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병인과 발병기전의 주요 표제어로서가 아니라, 삽입문에 불과하다. 변증논치 중에서도 陰陽兩虛型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陰虛燥熱”위주이며, “陽虛寒濕”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이것은 양자를 구별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개념 범주로 보아, “소단”이 “소갈”보다 더 넓은 개념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黃帝內經』 중 “소단”은 “소갈”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현대 의학의 갑상선 기능항진증 및 尿崩 등과도 관계가 있다.

『靈樞·五變』 중에 “소단”병의 구체증상을 열거하면서 “目堅固以深者, 長衡(혹은 衡)直揚”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目深의 “深”은 일반적인 “깊다”의 뜻이 아니라, “높다”(高)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고대문헌 중 몇 가지 방증이 있다. 13경의 하나인 《儀禮·覲禮》에 “壇, 深四尺”이라 하니, 東漢 말 經學家 鄭玄은 “深은 高를 일컫는다”²⁴⁾고 하여, 단의 높이가 4척임을 알 수 있다. 『左傳 文公 12년』의 “秦不能久, 請深壘固軍以待之”²⁵⁾ 문중에 “深” 또한 “高”의 뜻²⁶⁾이 확실하다. 따라서 『靈樞·五變』의 윗 구는 “눈을 휘둥그레 부릅떠 높이 솟아 있으며, 눈썹은 일자형으로 길고 곧다”라고 해석되며, “깊게 움푹 들어간 눈”으로 해석 하면 전후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靈樞·論勇』에서도 “勇士者, 目深以固”이라 하여, 용맹한 장사의 모습은 눈알이 높이 우뚝 솟아

나와 부릅뜬 모습이지, 움푹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안구(眼球)돌출을 묘사한 것²⁷⁾ 이라는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현대 당뇨병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소갈”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黃帝內經』 “소단”병의 병인, 발병기전 및 주요 임상특징은 현대의학의 尿崩과도 흡사 한 데가 있다. 다만 후자는 진액대사 이상과 관련되므로 肺脾腎, 특히, 肺腎기능 이상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多尿, 口渴, 多飲, 心煩 및 체중감소 등이 그 주요한 증상으로 꼽을 수 있다. 본병의 발병기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腎陽不足 또한 尿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尿崩이 『黃帝內經』의 “소단”에 속하는 병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현대의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증, 尿崩 등의 발병기전이 腎陽(氣)부족으로 인한 것이면 “異病同治” 원칙에 근거하여, 모두 金匱腎氣丸을 가감하여 치료하며, 이러한 병들은 모두 『黃帝內經』의 “소단”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III. 結語

『實用中醫內科學』은 “본 병(소갈을 의미함)은 『黃帝內經』에서 소단이라 한다”²⁸⁾라고 하여, “소갈”과 “소단”을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며, 단지 명칭의 차이 정도만으로 간주한다. 그로 인하여 당뇨병, 尿崩 등의 현대병을 모두 “소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黃帝內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자는 개념상 엄격한 구별이 있다. 원래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소갈”의 개념은 그다지 넓은 의미가 아니며, 단지 “소단”병의 증후(證候)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독자적으로 병명의 의미가 부여된 것은

24) 十三經. 儀禮.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7. p.660.
25) 진군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아군의 보루를 높이 쌓고 군영을 튼튼히 하여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십시오.
26) 郭丹. 十三經直解. 春秋左傳直解.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6. p.241.

27)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691.
28) 黃文東.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475.

『神農本草經』과 『傷寒論』 『金匱要略』에 이르러서이며, 특히 장중경은 『黃帝內經』에서 “소단”의 개념을 모두 “소갈”로 대체하며, 개념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神農本草經』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에 “소단” 혹은 “비단” 등의 명칭은 점차로 사라지고, “소갈”만이 독립적인 병명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實用中醫內科學』이 말하는 바대로, “소갈”과 “소단”을 동일 개념으로 본다면, “소갈”의 발병기전 중에 陽虛가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상대적으로 陰虛燥熱을 주요한 발병기전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현대 당뇨병이 “소갈”에 속하며, 따라서 그 병인, 발병기전은 陰虛燥熱을 위주로 한다는 도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상적 관점에서 보아도 陽虛 “소갈”, 이른바 “陰消” 또한 적지 않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 『黃帝內經』 “소단”의 陽虛 발병기전은 그 책에서 말하는 “소갈”의 발병기전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발병기전이다. 이런 까닭으로 “소갈편” 병인, 발병기전 중에 陽虛의 발병기전을 강조, 보충해 넣어야 비로소 “소갈은 『黃帝內經』에서 소단이라 한다”라는 뜻에 부합된다고 하겠고, 더욱 엄격히 말하면 “소갈은 『黃帝內經』의 소단에 속한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소단”과 “소갈”의 관계로 말하면, 『黃帝內經』 “소단”의 개념이 현대 중의가 일컫는 “소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전자는 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후자가 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參考文獻

1. 宋·朱熹 注. 詩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7. p.234.
2. 徐朝華. 爾雅今注.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4. p.39.
3. 清·王念孫. 廣雅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4. p.120.

4. 東漢·許慎 原著.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 長沙. 嶽麓書社. 1997. p.1028.
5. 清·王筠 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98. p.280.
6. 西漢·劉歆 著. 邵士梅 注譯. 山海經. 西安. 三秦出版社. 2008. p.24.
7.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五十二病方. 北京. 文物出版社. 1979. p.18.
8. 晉·黃甫謐著. 劉衡如校. 鍼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32, 240.
9. 隋唐間·楊上善 原撰. 李克光 等校注. 黃帝內經太素 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198.
10. 馬繼興. 神農本草經 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10.
11. 張剛. 中醫百病名源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92.
12. 唐·王冰 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61.
13. 隋唐間·楊上善 原撰. 李克光 等校注. 黃帝內經太素 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515.
14. 余雲岫. 古代疾病名候疏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14.
15. 明·張景岳.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07.
16. 明·張景岳.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08.
17. 明·肖京. 軒岐救正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p.451.
18. 馬繼興. 神農本草經 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31.
19.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709.
20. 金永日. 脈書 對中醫理論體系影響之探討. 上海. 中醫文獻雜誌. 2008. 5. p.12.
21. 王鋼柱. 中醫疏肝調氣法治療糖尿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2.
22. 黃文東.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477.

23. 十三經. 儀禮.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7.
p.660.
24. 郭丹. 十三經直解. 春秋左傳直解.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6. p.241.
25.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691.
26. 黃文東.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475.

